



강한 체력 중원 압박...아트사커 넘는다

'높은 지단'을 잡아라 무더진 발끝 '노쇠현상' 뚜렷

양리와 호흡도 안맞아... 아드보호엔 성공 열쇠

태극전사, 프랑스 공략 해법

강한 체력과 압박으로 독일월드컵 축구 G조 조별리그 토고와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아드보카트호가 이번에는 프랑스까지 넘어선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9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라이프치히 젠탈 슈타디온에서 조별리그 두번째 상대이자 '98프랑스월드컵 챔피언 프랑스와 일전을 벌인다.

프랑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8위(한국 29위)보다 월등히 앞선다.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티에리 앙리, 신예 공격수 프랑크 리베리 등 공격진이 탄탄하다.

파트리크 비에라와 클로드 마켈렐레 등 중원도 강하고 에리크

스위스가 미드필드에서 우위를 점하며 프랑스 보다 나은 경기를 펼쳤다"며 프랑스의 체력 저하를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축구가 체력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미드필드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이나 김남일(수원 삼성), 이호(울산 현대) 등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강한 중원 압박은 상대의 체력을 더욱 빨리 감소시킨다는 점도 있고 상대 공격수들



공격 핵 앙리 묶고 미드필드 장악

발빠른 이천수·정경호 등 측면 돌파

정교한 크로스로 실마리 풀어야

아비달과 윌리엄 갈라스, 릴리앙 튀랑, 윌리 사블이 버티는 포백 수비진도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이처럼 강하게만 보이는 프랑스도 이번 스위스와의 G조 1차전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프랑스는 '높은 아트사커'다. 주전 상대수가 30대를 넘겨 후반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다 좌우 풀백인 아비달과 사블이 잦은 오버래핑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자주 생긴다.

특히 이번 스위스전에서 보여준 지네딘 지단의 노쇠한 플레이는 프랑스 축구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전을 지켜본 하재훈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은 "후반들어

에게 가는 패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 수비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한국은 이천수(울산 현대)와 정경호(광주 상무), 설기현(울버햄프턴) 등 빠른 윙 포워드가 적극적으로 측면을 돌파하며 골문 앞으로 정교한 크로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토고전 승리로 자신감이 부풀어 있는 태극전사들이 노쇠한 프랑스 대표팀을 제압하고 이변을 연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월드컵에서만 4경기 연속 무득점의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한국축구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열린 프랑스와 스위스전에서 스위스의 요한 포겔(오른쪽)이 지네딘 지단의 눈을 가리며 볼을 뺏으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축구를 호령하던 현역 최고의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의 발끝도 세월의 흐름 앞에 갈수록 무뎠어지고 있는 듯하다.

지단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스위스와 독일 월드컵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풀타임을 뛰며 경기를 조율했지만 결국 득점없이 0-0 무승부를 지켜야만 했다.

프랑스의 공격은 지단이 미드필드 중앙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앙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와 좌우 측면 공격수 프랑크 리베리, 실뱅 윌토르 등에게 패스를 연결해 결정짓게 하는 패턴이 주를 이뤘다.

프랑스는 지단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컸다.

하지만 대표팀 은퇴 발표를 뒤집고 이번 월드컵을 위해 '백의중군'한 지단은 전성기 때와는 거리가 있었다.

패스 연결도 매끄럽지 않았고 활동 반경도 그리 넓지 않아 마크가 어렵지만은 않아 보였다.

서형욱 MBC해설위원은 "따로 마크맨을 붙일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단과 공격수, 특히 간판 골잡이인 앙리와 호흡이 잘 안맞는 모습이었다. 패스 속도와 방향이 앙리의 뜻과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프랑스에는 팀의 핵이 두 개(앙리와 지단)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클로드 마켈렐레나 파트리크 비에라가 올라오지 못하고 수비 진영에 머물며 공격 가담을 자제하는 것도 결국은 지단의 영향이 크다.

승점 1을 따내는데 그치며 다급해진 프랑스는 19일 열린 한국과 2차전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프랑스의 공격은 또 다시 지단의 발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남일(수원)과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등 경험많은 아드보카트호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노쇠한 지단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결국 프랑스전 성공의 열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佛 '무더기 경고'...한국, 덕 보나?

'경고덕 좀 보려나?'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주요 대회 때마다 불필요한 경고나 퇴장으로 치명타를 입곤 했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경고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

G조에서 상대가 버거운 두 팀, 프랑스와 스위스가 맞대결에서 무더기로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프랑스와 스위스 간 대회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러시아 수비수 발렌틴 이바노프는 양 팀 통틀어 무려 8차례나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대회 한 경기 최다다.

프랑스에서는 윌백 에리크 아비달과 윌리 사블, 미드필더 지네딘 지단 등 3명, 스위스에서는 윌백 튀도비크 마닝과 필리프 데진, 미드필더 리카르도 카바나스, 공격수 알렉산더 프라이와 마르코 슈트렐러 등 5명이 줄줄이 경고를 받았다. 모두 팀의 주

전들이다. 일단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스위스에서 무더기 경고가 쏟아졌다는 게 반갑다.

이들이 만약 토고와 2차전에서 경고를 한 차례라도 더 받는다면 한국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다.

물론 2차전 상대인 프랑스의 지단이나 사블, 아비달 등도 3차전을 생각한다면 한국전에서 플레이가 위축될 수 있다.

프랑스의 레몽 도메네크 감독이나 스위스의 야코프 쾨비 쿤 감독이 경기 후 한 목소리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토고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김영철과 이천수 둘만 경고를 받았다.

엄격해진 판정이 아드보카트호의 16강행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무자 이수재원장 직접시술관리**

가발

심는가발 탄생!!

대신가발남녀맞춤예술원

상주점: 054-271-8871, 054-271-8872, 054-271-8873, 054-271-8874, 054-271-8875, 054-271-8876, 054-271-8877, 054-271-8878, 054-271-8879, 054-271-8880, 054-271-8881, 054-271-8882, 054-271-8883, 054-271-8884, 054-271-8885, 054-271-8886, 054-271-8887, 054-271-8888, 054-271-8889, 054-271-8890, 054-271-8891, 054-271-8892, 054-271-8893, 054-271-8894, 054-271-8895, 054-271-8896, 054-271-8897, 054-271-8898, 054-271-8899, 054-271-8900

고유가시대 신기술 태양열 난방 온수기!!

문을 매세로한 태양열 난방 온수시스템

대형주택에너지보존수기부터 소형 주택 난방수, 모든 주택에 적합한 온수기 사용함.

효율성도

주방, 욕실, 샤워, 화장실, 세탁, 건조, 식탁, 에어컨, 증기사발 등

A/S도 신속합니다

수정 100만 원

무선측정 설치
무선측정기구형
100만원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6.15-6.30

그랜드솔라 **상주점** (054) 369-1800 (054) 242-7704